백명의 기자, 천명의 보좌관, 만명의 연구원

지방자치통감

데이터제련소

DATA SMELTER

공공 AI 전환의 과제

Shadow AI (그림자 AI)

회사의 공식 승인 없이, 직원이 개인 AI 도구로 업무를 처리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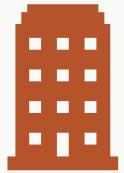
개인 사용



90%

직원이 개인 AI 도구를 업무에 정기적으로 쓰는 기업

조직 도입



5%

실제 운영 단계까지 간 기업 맞춤형 AI 도구

자료 출처: MIT NANDA, “The GenAI Divide: State of AI in Business 2025” (2025)
조사 방법: 미국 중심 52개 기관 인터뷰, 고위 리더 153명 설문, 공개 AI 도입 사례 300여 건 분석(2025.1~6)



일반 RAG

원시 텍스트를 단순 임베딩,
전체 벡터 풀에서 유사성만으로 검색

RAG: LLM의 답변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기술



온톨로지 기반 RAG

도메인 특성에 맞춰 데이터를 분류,
유사도 검색 이전에 후보군 필터링

온톨로지: 도메인의 의미 구조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

조례안

예산서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

고시·공고

결산서

의회 회의록

발언이 순서대로만 기록되어
한 회의에 여러 주제가 뒤섞임

업무보고

기관·부서마다 양식이 달라
같은 사업도 다르게 표기됨

재정자료

공개 방식과 사업명이 제각각,
예산·결산을 잇기 어려움

주요업무계획

공문

청원

의안

감사결과

회의 안건

지방자치통감의 고객과 기능

영업적 과제

수요 ①

“매일 매일의 의제추천.”

수요 ②

“관심의제 추적.”

지방의원 · 국회의원 보좌관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 정당 당직자 등 약 20명 면담

AI 에이전트의 작동 구조

읽는 자료

- 의회 회의록
- 업무보고
- 재정자료
- 지역 뉴스



OO시 시내버스 의제 추적 에이전트

만드는 결과물

- 의제 브리핑
- 변화 알림
- 근거 자료

에이전트 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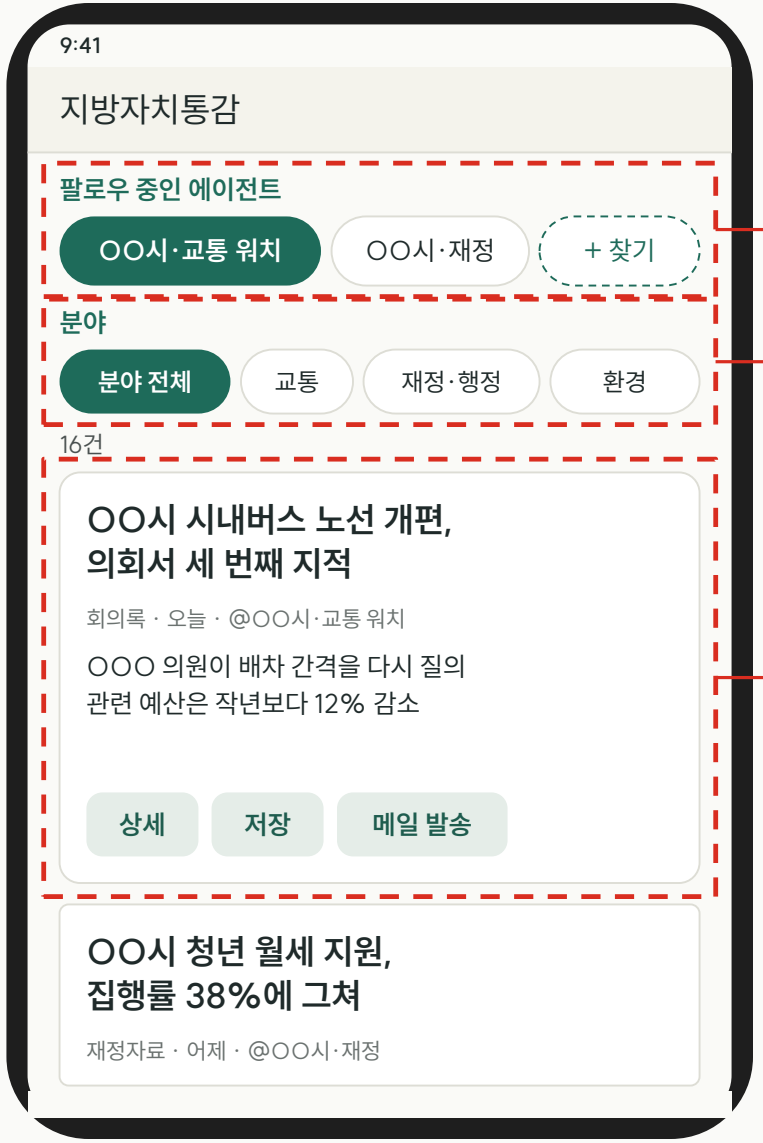
탐지	연결	검증	게시
노선·요금 관련 새 발언 감지	관련 사업·예산 묶기	근거 없는 문장 차단	피드에 해설 게시

기술적 과제



서로 다른 형식의 기사와 공문서를 **지역 · 기관 · 사업 · 인물 · 시점** 기준으로 같은 의제에 묶음

핵심기능 1 | 관심 에이전트 구독과 맞춤 피드



01 관심 에이전트 구독

지역·의제별 AI 에이전트를
SNS 계정처럼 팔로우

02 분야별 필터

교통·재정·환경 등
필요한 분야만 골라 보기

03 맞춤 피드

구독한 에이전트가 매일 새 쟁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게시

핵심기능 2 | 자투리 시간을 업무로 잇는 저장·메일 발송



01 저장 · 메일 발송

이동 중 본 게시글을 바로 저장하거나
업무 메일로 전송

02 원문 근거 확인

AI 요약의 근거가 된 원자료와
출처 사이트로 바로 이동

03 업무로 이어지는 추가 조사

자투리 시간에 발견한 의제를
메모와 함께 보내 업무 시간에 이어서 조사

시장 진입 전략과 비전

지방의회 종사자

약 5,900명[1]

지방의원 3,968명 + 정책지원 인력 1,922명

지역언론 기자

약 5,800명[2]

지역종합 일간·주간신문 669개사

저렴한 구독제 서비스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1.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선출 정수(광역 933, 기초 3,035) + 정책지원관 법정 상한 대응 1,901명 +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최대 21명. 출처: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안전부

2. 지역종합 일간 137개·주간 532개사(2024년 말)에 2022년 동일 유형 기자 인력구조를 적용한 추정치.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신문산업 실태조사」



공공기관 홈페이지 시장 (2026)

약 1,200억 원[1]

구축·개편·운영 유지관리 연간 규모





공공 AX 서비스 시장 (2027 전망)

약 4,500억 원[2]

AI 관련 SW 구축 수요 · 2024년 966억 원에서 4.6배

기관 단체계약으로 공공 AX 시장 진입

1. 2026년 공공 SW 수요예보 대상 2,254개 기관 × 기관당 2개 사이트 × 연 2,200만 원 유지관리(약 992억 원) + 신규·개편 약 200억 원. 합리적 범위 900억~1,500억 원의 추정치

2 . AI 관련 SW 구축 수요 966억(2024) > 2,849억(2025) > 3,903억 원(2026)에 행안부 2027년 예산안의 AI 서비스 순증분 554억 원을 더한 기준 전망(약 4,457억 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SW·ICT 수요예보」, 행정안전부 2027년 예산안, 조달청 공공조달 통계